

국내외 사업 혁신, 지속가능 성과 도모... '업계 2위' 도약

2023 보험사 경영전략

③ 신한라이프

성과·능력 바탕 조직개편 단행
업계 최초 넷제로 보험연합 가입
신한생명+오렌지 전산통합 완료
베트남 시장 진출 여부도 '촉각'

신한금융그룹이 진옥동 회장을 새 수장으로 내정하면서 신한라이프 또한 4년 만에 새로운 수장으로 맞이했다.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오렌지라이프 부사장과 신한라이프 전략기획그룹 부사장을 역임했다. 세대교체와 함께 보험업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사장은 이달 취임사에서 '도약'과 '혁신'을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이 건전성에 방점을 찍고 보수적인 영업을 예고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과거 오렌지라이프 대표직을 수행하던 시절부터 강조한 혁신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흔들림 없는 사업 혁신 전략 추진 ▲지속 가능한 성과 도모 등을 통해 생보업계 '톱2(TOP2)' 자리에 오르겠다는 포부다.



신한라이프, '팀 라이프(Team LIFE) 2023 발대식'에서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이 취임인사와 함께 비전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임직원들이 양사 통합 이후 시스템 구축 완료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 혁신과 지속 가능 경영에 방점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조직개편과 함께 경영진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는 보험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 혁신에 무게를 두고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15개 그룹은 12개로 줄었으며 14개 본부는 16개로 늘렸다. 77개 부서는 67개로 압축했다.

경영진과 팀장급 인사에서는 출신, 학력,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오로지 성과와 능력을 바탕으로 결정했다. 실제로 임원과 팀장의 평균연령은 각각 49세와 44세로 지난해 대비 각각 3세씩 낮아졌다. 여성 관리자 비율 또한 지난해 24%에서 32%로 올랐다.

이 같은 혁신 기조는 지난해 이룬 디지털 전환과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신한라이프는 스마트앱어워드 2022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자사 플랫폼인 '스퀘어(SQUARE)'가 있다. 스퀘어는 단순 보험 소개뿐 아니라 운세보기,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콘텐츠를 담아 플랫폼으로 형태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ESG경영 기조도 강화했다. 보험업계 최초로 넷제로 보험 연합에 가입했다. 보험계약 관리 및 인수, 상품·서비스 개발, 자산 운용 등 일련의 과정에 탄소 중립 방안을 시행한다. 신한라이프의 ESG경영 강화 기조는 '개인의 가치관'에 지갑을 여는 MZ세대의 이목을

끌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는 업무처리 과정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지난해 신한라이프는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양사의 전산시스템 통합구축을 완료했다. 지난 2020년 7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합병을 진행하고 전산시스템 통합에만 22개월이 걸렸다. 과거 양사가 수집한 소비자 데이터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해외시장도 혁신으로 이끌까?

지난해 신한라이프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첫발을 뗐다. 베트남 호찌민에 1호점 점점했으며 하노이에 2호점을

열었다. 베트남 시장은 금융업계 전반이 진출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베트남 진출에 있어 후발주자인 만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여부가 수익 창출의 한 축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의 베트남 시장 진출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진출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와 협업을 통해 영업 창구를 확대했다. 어린이용 독립 보험상품과 방카슈랑스 등 판매 채널을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베트남의 인구수는 9895만명으로 1억명에 달하며 매년 7~8%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보험 가입률은 5% 수준에 불과하다. 베트남 시장 상황에 맞는 상품 개발과 영업 채널 확장을 통한 선점이 중요한 이유다.

신한라이프 베트남법인인 자본금 2조3200억동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의철 법인장과 주재원 및 현지 채용 직원 등 약 40명으로 출범했다.

이 사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금지를 모아 생보업계의 톱2(TOP2)를 넘어 일류 신한라이프 달성이란 위대한 꿈을 신호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성기자 kimsani19@metroseoul.co.kr

금리 '고정형' 늘리고, '찜뚝' 내리고 ... 전세대출 지원 실효성 '글썸'

당국 전세대출 지원방안 마련 속도 은행권, 금리 인하 등 동참 잇따라
예금금리 대비 인하 폭 낮아 지적

최근 금융당국이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 전세대출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낮은 금리 인하폭과 시중은행의 자율성에 맞긴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출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에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2년 고정금리 전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금리인상과 전세자금대출 기준 강화로 인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20만8315)중 월세 거래량이 41.8%를 차지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금리 고정형 상품을 다른 은행도 취급하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최근 주택금융공사도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전세대출 출시에 대한 의견을 다음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확대

를 시중은행에 강요할 순 없다"며 "은행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길 때 따라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일제히 동참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주택금융

공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데,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은행들이 산금리를 더 낮게 책정해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100% 보증 확대와 관련 "전액 보증은 지나치다"며 "갭투자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당국 압박에... 은행 대출금리 인하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시중은행이 전세대출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의 우대금리를 기존 연 0.80% 포인트(p)에서 연 1.1%p로 확대했다. 아울러 부수 거래 감면금리를 최대 연 0.20%p에서 연 0.60%p로 확대한다. 특히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주택보증 상품의 금리를 최대 연 0.95%p까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총주택보증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연 1.55%

p까지 낮아진다.

앞서 하나은행, KB국민은행도 일부 대출상품 금리를 조정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원큐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원큐신혼부부전세론, 원큐 다둥이전세론에 대한 금리를 6개월물 금융채 기준 0.5%p 낮췄다. 원큐우량전세론, 원큐주택담보대출, 원큐신용대출은 상품별로 연 0.1%~0.35%p까지 금리를 낮춘다.

다만,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수준은 급등한 금리와 예금금리 인하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3.98%로 떨어졌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대부분 연 5%에 머물렀지만, 금융당국이 수신경쟁을 자제하도록 압박하면서 4% 초반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연 3%대는 4대 은행 중 처음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갈 곳 없는 저신용자... 인터넷은행 대출 취급액 급감

중·저신용자 신용 공급 미흡
금융당국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인터넷은행들의 저신용자 신규 신용대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대출 보릿고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신용자 대상 신규대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의 신규대출 잔액 합계를 보면

지난해 8월 전년 대비 27.9%가 하락했고, 9월에는 31.2%, 10월에는 25.2%가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신규취급액의 경우 68억 원으로 지난해 1월(117억 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했고, 신규계좌수 역시 896좌에서 416좌로 줄었다.

인터넷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이 포용하지 못하는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사채 시장으로 빠지는 것을 막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로 탄

생했다.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과 포용금융을 통한 '금융권 메기' 역할까지 기대했지만 저신용자까지는 챙기지 못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도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지적했다. 평가위는 "인터넷은행들의 영업 결

과, 금융 편의성은 제고됐지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금융당국이 해당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터넷은행 3사의 여신 잔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의 여신 잔액은 전달보다 244억 원 증가한 27조 8877억 원, 케이뱅크는 2200억 원 늘어난 10조 7700억 원이었다. 토스뱅크는 3분기 7조 1000억 원에서 12월(추정치)말에는 8조 6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중신용자 개인사업자 대출과 주택담

보대출 등에서 여신 잔액이 상승해 전체 여신 잔액이 높아진 것이다.

이자이익 증가에 따라 순이익은 매분기 성장하고 있지만 둔화된 여신 성장 및 플랫폼 수익을 비롯한 수수료 수익이 부진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체 인터넷은행의 고정이자 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은 2021년 말 0.29%에서 지난해 3분기 0.4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은 0.23%에서 0.21%로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건전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